

소설 속 대화의 번역: 존대등급 종결어미의 문체적 활용

원은하* · 김성희** · 전주영
(경운대)

1. 서론

소설은 산문 형태로 된 문학 텍스트로서 다양한 서술기법을 통해 상상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그중에서도 직접화법으로 구현되는 소설 속 등장인물 간의 대화는 마치 서술자의 중재를 거치지 않은 특정 인물의 발화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사실성과 현장성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창출되는 생동감은 인물들의 성격이나 극중 상황, 또는 갈등 등에 대하여 몰입도를 높이므로 현대 소설의 대화를 현실의 구어처럼 재현하려는 시도는 보편적인 것이다(Cadera 2012: 36). 또한 소설의 대화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 핵심 정보를 전달하므로 내러티브의 절정에서 등장하며(Coulmas 1986), 작품 내에서 인물의 배경과 성격, 인물 간의 역동적인 관계 및 심리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술 기법의 하나이다.

한편 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수단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 대화 참여자와의 관계나 대화 상황 등 언어외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맥락 중 일부가 문법이나 어휘로 형식화되어 있고 언어마다 그 방식과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대화 번역의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 사용에 따른 효과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소설 대화문이나 희곡을 분석텍스트로 하여 방언(김순미 2011; 진실로, 원은하 2019), 호칭어(이숙자 2014; 한현희 2015), 종결어미(권은희, 성초림 2014; 김혜영 2019), 어투(권오숙 2010; 김지은 2016; 김혜경, 윤소영 2018) 등 다양한 구어적 속성의 번역 전략이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번역 전략들을 논의하여 번역자가 비판적으로 번역 전략을 선택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서법과 상대높임법에 따라 그 형태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대화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외국어 대화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권은희와 성초림(2014)은 한국 소설 대화문에 나타난 종결어미가 번역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메밀꽃 필 무렵」의 종결어미에 내포된 고도의 정보성과 그로 인한 문체적 특성이 스페인어 번역본에서 사라지면서 의미가 불투명해지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재현하기 위하여 번역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 소설의 대화에 나타난 서술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특히 공손성의 체계가 한국어보다 단순한 영어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적절한 종결어미의 선택을 위한 맥락의 파악이 중요하다. 한국어 종결어미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나 대화 상황에 대한 번역자의 매우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때로는 원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관계가 충분히 명시적이지 않거나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미소설 속 대화의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의 실현 양상을 기술하고 그 원인과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상대높임법 중 존대등급의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화용적 특성과 문체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논의는 주로 합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현실

* 제1저자

** 교신저자

구어에서 해요체가 보편적인 공손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합쇼체의 사용 맥락이 제한된 반면, 소설 대화에서는 합쇼체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므로 사용상의 특이점을 관찰하기에 합쇼체가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 3장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특성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설 대화에 내재된 구어성과 문어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도출한 소설 대화의 특성과 대화 번역에서의 종결어미의 선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논의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번역텍스트에서 합쇼체가 구현된 양상을 기술하며, 5장의 결론부에서는 4장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종결어미가 일반 구어에서의 사용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소설 대화의 문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번역 문제라는 관점에서의 확장된 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한다.

2. 존대등급 종결어미의 특성

2.1 존대등급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은 사회적 직시(social deixis)가 문법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사회적 직시란 “화자, 청자, 또는 지시되는 개체나 제 삼자 등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 간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등”(이해운 2009: 204)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상대높임법은 대화참여자 간의 상호교류가 중요한 구어에서 필수적인 문법 표지로서, 그 체계에는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대화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상대높임법의 체계는 전통적으로 격식성과 존대 여부를 기준으로 존대등급인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그리고 비존대등급인 하계체, 해체, 해라체의 6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²⁾. 그러나 사용상의 측면을 강조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삭제한 4가지의 등급으로

- 1) 상대높임법의 존대등급 종결어미 중 하오체는 일상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소설 대화에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어 나름의 문체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나, 소논문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대비를 통한 합쇼체의 유표적인 사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데 집중하였다.
- 2) 상대높임법의 등급 (서정수 2006: 995-996의 <표 5>와 <표 6>을 축약한 것임)

분류하기도 한다(왕문용, 민현식 1993).

소설 대화의 문체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존대등급 종결어미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존대등급의 종결어미인 합쇼체의 유표성 때문이다. 현대 국어의 상대높임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격식체가 격식체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해요체는 공손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지로 자리 잡았으며 합쇼체는 격식성과 공식성이 높은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강현석 2011; 박지순 2019; 서정수 2006; 이경희 2015). 그러나 소설 대화의 번역에서는 일상 구어에서보다 합쇼체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구어와 소설 속의 모방된 구어에서 나타난 종결어미 합쇼체의 사용상의 차이를 분석하면 소설 대화, 그리고 대화 번역의 속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2 합쇼체와 해요체의 화용적 특성

특정한 종결어미를 선택하기 위하여 화자는 대화참여자나 대화 상황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은 크게 ‘대인적 맥락’, ‘물리적 맥락’, 그리고 ‘인지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Simpson 2004: 35). 본 절에서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화용적 특성을 이 세 가지의 맥락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2.2.1 대인적 맥락

대인적 맥락으로 고려되는 요인은 화자와 청자의 연령, 성별, 지위, 화자와 청자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이 있는데, 합쇼체와 해요체는 낮설고 비교적 친밀도가 낮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청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모르거나 화자보다 청자의 연령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화자의 성별에 따라 두 종결어미의 사용 분포가 다르

	격식	비격식
존대	아주높임(합쇼체)	두루높임(해요체)
	예사높임(하오체)	
비존대	예사낮춤(하계체)	두루낮춤(해체)
	아주낮춤(해라체)	

게 나타난다. 해요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합쇼체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사용한다(강현석 2011; 박지순 2019). 특히 집단청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청자의 성별, 연령, 지위에 상관없이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박지순 2019: 173).

2.2.2 물리적 맥락

합쇼체와 해요체는 대화 장소와 장르 등에 따라 사용상의 차이를 보이며, 격식성을 기준으로 사용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대화 장소와 상관없이 두루 사용되는 해요체에 비하여 합쇼체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경찰서 등 격식성과 공식성이 높은 발화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 비율이 높으며 업무나 강의, 발표, 뉴스 보도 등의 장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박지순 2019), 이는 격식성과 합쇼체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합쇼체가 뉴스, 발표 등 격식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용될 때 성별에 따른 두 종결어미의 사용상의 차이는 현저히 줄어들며(강현석 2011; 이경희 2015), 특히 TV 뉴스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합쇼체를 기본 종결어미로 사용한다(최윤지 2018).

전통적으로 해요체는 비격식체인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최근 격식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쇼체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뉴스 매체에서 화자의 전략적인 언어 사용 목적에 따른 해요체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요체가 비격식적인 상황과 격식적인 상황에 두루 사용되는(박지순 2019: 277) 보편적인 높임의 종결어미로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합쇼체의 사용 영역은 보다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2.3 인지적 맥락

한국어 화자는 동일한 청자와의 담화에서 존대등급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스트라우스와 은(Strauss and Eun 2005)은 담화 장르나 사회적 계층화 등의 사회적 요인만으로는 존대등급의 선택과 변환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서 지표성(indexicality)이라는 개념으로 두 높임등급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표성이 있는 기호의 의미관계는 맥락의존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화자의 인지, 관심 집중, 대화 참여자 간의 정보 공유 상태 등의 맥락이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626-627).

이들은 합쇼체와 해요체를 ‘경계성(boundary)’이라는 자질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화자의 인식 속의 청자라는 맥락에서, 합쇼체는 ‘경계성’ 자질이 있으므로 청자를 화자로부터 배제시키며 해요체는 그 반대로 ‘경계성’ 자질이 없어 청자를 포함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쇼체의 종결어미는 대화 참여자들 간에 감정을 교환하는 양방향적인 상황보다는 일방향적인 담화에 주로 사용되며 해당 발화는 객관적인 단정이나 진술로 인식된다(Yoon and Lee 2012). 반면 해요체는 청자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증시하는 태도와 연결되며 서로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감정을 교류하는 경향이 있다(Strauss and Eun 2005).

이 개념은 장경현(2006)이 종결어미의 문체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한 지향성(directivity) 개념과도 연결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발화 행위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일정한 지향성을 지니는데,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서 발하는 화자지향성 또는 청자지향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지향성이 높으면 발화가 화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며 단정적인 어감을 주게 된다. 반면 청자지향성이 높으면 발화가 청자에게 열려 있어 청자 중심적인 발화가 된다.

이렇게 화자의 인식의 작용에 따른 맥락에 따라 두 존대표현이 선택되는 것은 “화자가 능동적·전략적으로 특정 의도를 가지고 특정 등급을 선택하여 사용”(최윤지 2018: 183)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상대높임법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화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전환과 선택을 통해 “청자에 대한 태도나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와 관련한 태도를 투사한다”(Strauss and Eun 2005: 629).

2.3 해요체와 합쇼체의 화용적 의미와 문체적 특성

해요체와 합쇼체는 현실의 대화 상황에서 대인적, 물리적, 인지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선택되며, 이렇게 다양한 맥락 속에서 <표 1>과 같이 서로 구분되는 화용적 의미와 기능(강현석 2011; 박지순 2019; 이경희 2015; 장경현 2006; 최윤지 2018; Yoon and Lee 2012; Strauss and Eun 2005)을 가지게 된다.

〈표 1〉 해요체와 합쇼체의 화용적 의미

구분	해요체	합쇼체
지향성	청자지향성	화자지향성
정보 전달	구정보 / 주관적	신정보 / 객관적
기능과 어조	공감과 감정 표현 / 친밀	진솔과 전달 중심 / 진지
거리감	유대감 강조 / 연계성	위계성 강조 / 단절성
격식성	낮음	높음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해요체와 합쇼체는 화자의 인지 상태에 따른 지향성, 정보성, 의사소통의 기능, 사회적 거리, 어투의 격식성 면에서 서로 대립되는 특징을 보인다. 합쇼체는 일방향적이고 화자 중심적인 표현으로 상대적으로 화자지향성이 높으며 화자의 역할, 권위, 그리고 화자의 전문성이 부각된다(Strauss and Eun 2005: 646). 또한 합쇼체는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 선호된다. 이 때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중요성은 매우 높아서 진지하고 심각한 어조가 형성된다(박지순 2019).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합쇼체는 독단적이나 단절적인 어감이 전달될 수 있어 의문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이경희 2015).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요체는 청자 중심적인 표현으로 청자지향성이 높아 청자와의 연계성이 강하며 청자와의 공통된 맥락이 강조된다. 종결어미 ‘-요’는 다양한 양태적 기능이 있는 해체와 반말체 뒤에 붙어서 사용되므로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공감과 지지 등의 다양한 양태적 의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박지순 2019: 277-278) 합쇼체에 비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유대감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작가는 현실 대화에서 통용되는 종결어미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참고하여 소설 속의 대화문을 구성하게 된다. 현실 구어의 대화 규범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인물과 사건의 사실성과 생생함이 증대되고, 의도적으로 대화의 규범을 위반하면 특정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영미소설의 대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번역자는 작가의 입장에서 종결어미의 사용 규범에 따른 의미와 어감을 참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종결어미를 선택하여 등장인물의 발화에 부여하게 된다.

3. 소설 속 대화의 특성

3.1 구어성과 문어성

언어의 전달 매체(mode)에 따라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은 구어, 문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문어라고 통칭할 수 있으며, 언어의 표현 방식이나 문체적 특성 등에서 서로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구어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에 있으며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호칭, 상대높임법, 직시소 등을 사용하며 단순한 문장이 첨가적으로 연결되고, 쉽, 억양, 강세 등의 음성적 정보가 필수적이다. 반면 문어는 호칭이나 상대높임법이 쓰이지 않으며 관형절 등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될 수 있어 서술에 용이하고, 문장부호 등 시각적 기호의 도움을 받는다(김미형 2004: 45).

구어와 문어의 특징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따르면(김미형 2004; 노대규 1996; 임명진 2018; Koch and Oesterreicher 1985, Cadera 2012에서 재인용) 구어와 문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리적인 맥락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된다. 구어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며 이루어지는 면대면 대화이므로 즉시성(immediacy)이 강하여 상황의존성이 강하고 상호교류의 특성이 있으므로 격식성이 낮은 언어 표현이 사용되는 반면, 문어는 탈상황적이고 화자와 청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심리적 거리(distance)가 멀고 서술과 정보 제공의 기능이 강하므로 격식성이 높은 언어 표현이 사용된다. 이러한 구어와 문어의 보편적인 속성은 각각 구어성(orality)과 문어성(literacy)³⁾으로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어는 구어성이 높고 문어는 문어성이 높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은 정도성을 가지면서 어느 발화어나 존재한다(Cadera 2012). 예를 들어 TV 뉴스보도는 구어이지만 문어성이 높고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 대화는 문어이지만 구어성이 높다. 화자는 구어성과 문어성의 양극단 사이에서 담화 상황이나 청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그 정도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구어성(orality)은 화법 연구에서는 주로 ‘구술성’으로 불리며, 문어성(literacy)은 ‘구술성’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기술성’, 또는 ‘문자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전달 매체로서의 구어 대 문어라는 개념의 대비, 그리고 현실 구어 대 모사된 구어인 소설 대화와의 대조를 위하여 김미형(2004)의 구분을 따라 ‘구어성’과 ‘문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2 현실 대화와 소설 속 대화

소설 속 대화는 대개 현실의 구어 담화를 모방하므로 구어성이 높지만, 문자로 전달되는 까닭에 문어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구어와 문어의 특성이 공존하는 소설 대화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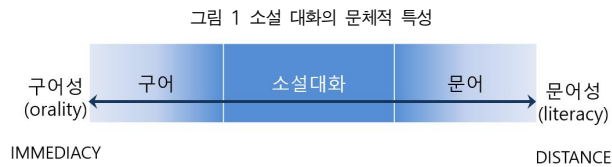


그림 1은 구어성과 문어성을 양극으로 하는 문체의 개념적 연속선으로, 구어는 구어성이 강하고 문어는 문어성이 강하므로 각각 구어성과 문어성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소설 대화는 문어를 통하여 구어성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수직선상에서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실제 구어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소설 대화는 현실 대화와 달리 문자로 전달된다.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은 즉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저음이나 부정확한 발음, 생략, 말고침 등의 비유창성이 나타나며,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 등 개인적인 어투의 특색이 드러난다(Al-Raba'a and Davis 2020). 반면 소설 대화는 작가가 시간을 들여 문자로 완성한 창작물이므로 유창성이 높고 표현의 중복이나 머뭇거림 등의 실시간적 특성이 없다(Leech and Short 2007: 132). 또한 음조나 억양 등의 정보는 서술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된다. 그밖에 방언 등 개인적인 언어 특성은 문자화에 한계가 있어 표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소설 대화가 현실의 대화의 비유창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주저음이나 부정확한 발음, 생략, 말고침 등을 문자화하는 경우는 오히려 유표적인 문체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133).

두 번째 차이는 화자와 청자의 이중성이다. 소설 대화는 소설의 무대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화자와 청자이지만, 그 대화는 독자가 인지할 때에 비로소 대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보다 상위에 작가와 독자라는 화자-청자 관계가 존재하고, 독자는 “발화의 바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화자의 태

도와 말투를 평가”한다(장경현 2006: 72). 이러한 시공간의 단절과 거리감으로 인하여 실제 대화의 실시간 상호교류의 특성은 소설 대화에서 매우 약하다. 그 결과 소설 대화는 실제 대화에 비하여 실시간성은 약한 대신 정보성이 높게 나타난다(강범모, 김홍규, 허명희 1998). 정보성은 문어성의 특성이므로 소설 대화는 현실 대화에 비하여 문어성이 높아 격식성도 높은 편이다.

소설 대화는 구어를 모방하기 위하여 호칭어나 상대높임법 등의 공손성 표현과 직시어 등의 다양한 구어 표현을 구사하지만 위의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구어보다 이상적이고 복잡한 구문의 대화가 만들어진다. 소설 대화는 결국 작가가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작가는 일종의 이상적인 독자를 상정하여 대화를 창조할 뿐 실제 독자와 교류하지는 않으므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지적 공통점은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소설 대화는 현실 대화보다는 생각이 적고 더 설명적으로 재현되며, 문어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현실 대화는 화자와 청자와의 친교적인 상호교류가 중요하지만 소설 대화는 상호교류를 초월한 미학적 목적이 존재한다. 작가는 즉흥적이고 역동적인 구어의 의사소통을 재현하기 위하여 문자를 이용하며 현실을 바탕으로 작가 고유의 문학적 세계를 창조하므로 내러티브 기법의 선택과 그 기법이 현실성을 창조하는 능력에 따라서 구어다움의 정도에는 작품마다 차이가 있다(Cadera 2012: 37).

<표 1>을 통해 대조한 해요체와 합쇼체의 화용적 의미는 각각 구어성과 문어성의 특성과 합치하는 면이 있다. 해요체가 청자지향성이 높고 화자-청자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격식성이 낮다는 점은 구어성의 특성과 상통하며, 합쇼체가 화자지향성이 높고 화자-청자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 전달 중심의 언어 사용으로 격식성이 높다는 점은 문어성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해요체가 사용된 문체는 구어성이 높고 합쇼체가 사용된 문체는 문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소설 대화는 구어를 모방하지만 문자 텍스트라는 특성과 작가-독자의 관계로 인하여 문어의 다양한 특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소설에서는 다양한 화법을 구사할 수 있어서 대화참여자의 발화를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으로 섞어서 표현하거나, 대화의 일부를 드러내고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는 등 실제 대화의 규범을 넘어선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소설 대화는 작가가 구사할 수 있는 문체 중 하나로 문어적 특성을 지니므로 소설 대화의 번역에서도 문어성이 높은 합쇼체가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4. 번역텍스트에서 합쇼체의 활용

본 장에서는 소설의 대화 번역에 나타난 합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체적 기능을 살펴본다.

4.1 현실성의 재현

합쇼체는 격식성과 공식성이 높은 맥락에서 사용되므로, 소설 속에서 재판이나 인터뷰, 발표 등의 장면에서 사용된 대화에는 합쇼체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ST1

“Didn’t you call a doctor?”

“No, sir,” repeated Mr. Tate.

“Why not?” There was an edge to Atticus’s voice.

“Well I can tell you why I didn’t. It wasn’t necessary, Mr. Finch. She was mighty banged up. Something happened, it was obvious.”

“But you didn’t call a doctor?” (224)

TT1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테이트 씨가 반복했다.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망이 되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의사를 부르지 않았군요.” (243)

예문 ST1-TT1은 하퍼 리(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 Bird*)』중에서 재판 장면의 일부이다. 누명을 쓴 피고인의 변호인인 애티커스 핀치가 원고 측 증인인 테이트에게 신문하는 장면으로, 질문과 답변이 주로 합쇼체로 이루어져 있다. 재판이라는 상황은 엄격하고 진지하며 논리성과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또한 화자와 청자와의 교류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전

달이 중요하며 대화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단절적이고 대립적이다. 현실 구어에서도 재판에서는 격식성이 높고 문어성이 강하여 합쇼체가 주로 사용되므로 TT1에 사용된 합쇼체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예문 ST2-TT2는 미치 엘봄(Mitch Albom)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Tuesdays with Morrie*)』중에서 TV쇼 진행자인 테드가 루게릭병에 걸린 모리 교수를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ST2

“But there are days when I am depressed. Let me not deceive you. I see certain things going and I feel a sense of dread. ...[중략]... They’re such an essential part of me. I talk with my voice. I gesture with my hands. This is how I give to people.”

“How will you give when you can no longer speak?”

Koppel asked.

Morrie shrugged. “Maybe I’ll have everyone ask me yes or no questions.” (70)

TT2

“하지만 사실 낙심하는 날도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 더럭 겁이 납니다. ...[중략]... 그것들은 나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목소리로 나는 말을 합니다. 손으로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고요. 사람들과 손이나 말로 마음을 나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시겠습니까?”

코펠이 물었다. 모리 교수님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겠지요.” (127)

모리는 인터뷰 당시 팔순에 가까운 노인이고 질문자인 테드는 50대였다. 이 인터뷰는 두 번째 인터뷰로, 테드와 모리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된 이후이며, 모리의 방에서 격의 없이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대화의 주제와 장소가 개인적이며, ST2에서 모리는 평이한 어휘와 단순한 구문 등 구어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인터뷰라는 장르의 특성상 공식

성이 높고, 모리가 직접적으로는 질문자인 테드에게 답변하고 있지만 방송을 시청하게 될 독자들이 최종적인 청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모리의 어투에 합쇼체를 섞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게 하고 있으며, 테드의 질문도 합쇼체로 번역함으로써 현실 구어에서 나타나는 방송 인터뷰 장르의 격식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4.2 정보 전달

현실 대화에서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호교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소설의 대화는 정보 전달의 기능이 더 우세하다(강범모 외 1998). 소설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극중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거나 반전,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등 정보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소설의 대화는 현실 대화에 비하여 화자(또는 작가)의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격식적이고 사적인 대화 장면을 번역할 때도 정보 전달 기능이 우세한 합쇼체가 적절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친밀도가 낮은 인물들의 대화에서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합쇼체가 사용된다.

ST3

“It was done on a much smaller scale, of course,” Vittoria said, talking faster now. “The process was remarkably simple. He accelerated two ultrathin particle beams in opposite directions around the accelerator tube. The two beams collided head-on at enormous speeds, driving into one another and compressing all their energy into a single pinpoint. He achieved extreme energy densities.” She started rattling off a stream of units, and the director’s eyes grew wider. (64)

TT3

“물론 실험은 더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어요.”

비토리아가 좀 더 빠른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개의 극세립자 광선을 가속기 튜브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던 두 광선이 충돌하면, 두 광선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점으로 응축됩니다. 아버지는 에너지를 응집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비토리아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자 콜리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14)

ST3-TT3은 댄 브라운(Dan Brown)의 『천사와 악마(Angels and Demons)』의 한 장면으로 비토리아라는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가 성공한 물리학 실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대화 장소는 사무실이고, 대화참여자인 비토리아, 랭던, 콜리는 업무 관계여서 친밀도는 낮은 편이다. 비토리아는 남주인공인 랭던과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해요체를 주로 사용하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 어투가 합쇼체로 번역이 되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보성이 높은 전문적인 사실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TT3과 같이 합쇼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구어 상황에서 TT3과 같이 말한다면 매우 어색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 대화에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정보 전달을 위하여 합쇼체를 선택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TT3에서는 전달되는 정보가 소설의 플롯을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되므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비토리아가 합쇼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과 정보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전달하는 어투로 만들었다.

이렇듯 수사물이나 첩보물에서는 합쇼체로 말하는 인물을 종종 볼 수 있다. 장르의 특성상 공공 기관에 소속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수직적 위계 관계로 엮여 있다. 또한 친밀도가 낮은 인물들끼리 사적, 또는 공식인 공간에서 대립과 갈등을 이루며, 사건이나 범인과 관련된 숨겨진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서사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ST4

‘I asked whether “lateralism” was a word to you.’

‘It most certainly is not.’

‘It’s the “in” doctrine. We used to go up and down. Now we go along.’

‘What’s that supposed to mean?’

‘In your day the Circus ran itself by regions. Africa, satellites, Russia, China, South-East Asia, you name it; each region was commanded by its

own juju man. Control sat in heaven and held the strings. Remember?’
‘It strikes a distant chord.’

TT4

「혹시 수평 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인데.」

「그게 지금 서커스에서 통하는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수직 구조였으나 이
제는 수평 구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조지. 당신 시절에 서커스는 지역별로 활동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 위
성 국가들,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지역이 나뉘어 있었지요. 각
지역은 현재의 주주맨이 총괄했지요. 컨트롤은 까마득한 하늘 위에 앉아
서 조종을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아득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군.」 (53-54)

ST4-TT4는 존 르카레(John Le Carré)의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Tinker, Tailor, Soldier, Spy*)』의 한 장면이다. 첩보기관에서 은퇴한 주인공인
스마일리와 그를 강제로 어디론가 데려가는 후배 첩보원과의 대화로, 두 인물
은 업무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직장 선후배와의 대화로 볼 수 있다. 연령이나 직
위로는 스마일리가 후배 첩보원보다 상위에 있지만, 현역인 후배가 어떤 임무
를 받고 스마일리를 납치한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의 우위는 후배에게 있
으며 두 인물 간의 이해가 충돌하므로 서로 대립적인 관계이다. 이 대화에서 후배
첩보원은 예전과 달라진 업무 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합쇼체를 구사하
도록 번역되어 있다. 합쇼체의 의문문 형태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듯한 강압적인 어감으로 인하여 실제 구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TT4에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라는 식으로 의문문도 합쇼
체로 번역하여 대화 당사자들 간의 거리감과 경직된 관계가 강조된다. 이렇듯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합쇼체가 사용되면 전달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
신 인물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과 긴장감을 형성한다.

4.3 인물 설정

4.3.1 남성어와 여성어

전통적으로 합쇼체와 해요체는 각각 남성어와 여성어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해요체는 원래 특정 지방의 여성과 아동이 사용하던 어투였다(서정수
2006: 1000) 현재는 보편적인 공손 표현으로 남녀 모두에게 두루 사용되고 있
다. 합쇼체의 경우 현실 대화에서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남성이 사용하는
빈도가 여성이 사용하는 빈도보다 높게 나타난다(강현석 2011; 박지순 2014).
소설 대화에서도 남성 인물의 어투에 합쇼체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
가 있다(김정호 2008). 강현석(2011)은 성별에 따른 합쇼체 사용 빈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대화 스타일의 차이가 해요체와 합쇼체의 특성 및
사용 목적과 거의 일치함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대화 전략은 양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인하는 하위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테넨(Tannen 1991,
강현석 2011: 17에서 재인용)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요체는 여성어의 특성인 공
감, 친밀, 연대의 의미를 지니고, 합쇼체는 남성어의 특성인 보고, 설명, 공식적,
대립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합쇼체를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
는 이유는 한국 남성들의 군사 문화(김정호 2008)와 더불어, 사회의 공격 영역
에 그간 여성이 발언을 할 기회가 적었던 것을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재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녀 어투의 차이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설 대화 번역에서, 여전히 합쇼체와 해요체는 성별을 구분하는 효
과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번역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이 해요체를 더 많이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비언어적 장치를 동원할 수 있는 현실 대화와
는 달리 소설 대화는 문자를 통해서 대화의 내용과 상황을 전달해야 하므로 독
자가 대화자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남녀의 어투를 다르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장경현 2006: 73-74). 이러한 구분은 남녀의 성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대물에서 보다 흔히 접할 수 있다.

ST5

“Something terrible and disgraceful has happened.” Aunt Tranter looked
with alarm at the tragic and outraged face of her niece, who went on:

“Charles had been disinherited.”
 “Disinherited!”
 “Ernestina exaggerates. It is simply that my uncle has decided to marry. If he should be so fortunate as to have a son and heir . . .”
 “Fortunate . . . !” Ernestina slipped Charles a scalding little glance. Aunt Tranter looked in consternation from one face to the other.
 “But . . . who is the lady?”
 “Her name is Mrs. Tomkins, Mrs. Tranter. A widow.”
 “And young enough to bear a dozen sons.”
 Charles smiled. “Hardly that. But young enough to bear sons.” (200)

TT5

「너무나 끔찍하고 창피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이모.」트랜터 부인은 놀란 얼굴로 조카딸의 비극적이고 분개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이가 상속을 못 받게 됐지 뭐예요?」
 「상속을 못 받게 되다니?」
 「티나가 과장한 겁니다. 다만 저의 백부님이 결혼하기로 작정한 것뿐입니다. 다행히 그분께서 아들이라도 보아 상속자를 얻게 되면……」
 「그게 다행이라고요?」
 어니스티나는 찰스에게 부글부글 끓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트랜터 이모는 놀라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런데…… 부인 되실 분은 누구지?」
 「톰킨스 부인이라고, 과부예요.」
 찰스의 말에 뒤이어 어니스티나가 재빠르게 덧붙였다. 「게다가 아들을 열 명도 넘게 낳을 만큼 젊은 여자라고요.」
 찰스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만큼은 아직 젊은 편이지요.」(261-262)

ST5-TT5는 존 파울즈(John Fowles)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The French Lieutenant's Woman)』의 일부이다. ST5는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약혼한 사이인 찰스와 어니스티나, 그리고 그녀의 이모인 트랜터가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대화 장면의 격식성은 낮은 편이다. 이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찰스와 어니스티나는 이모에게 존대등급의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어니스티나는 이모에게 일관되게 해요

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찰스는 합쇼체를 해요체와 함께 사용한다.

『프랑스 중위의 여자』에서는 다양한 지위에 있는 남성 인물들이 여성과 대화할 때 사적인 상황에서도 합쇼체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독자들은 합쇼체를 남성 인물과 연관지어 인식하고, 그 반대급부로 해요체는 여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 대화할 때 남성에게 합쇼체를 부여하는 것은 번역자가 소설 속의 대화를 번역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어투를 창조할 때 인물 간의 구분을 위해서 종결어미를 좀 더 양식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3.2 개인어

합쇼체는 화자지향성이 강하고 청자와의 단절성이 강조되며 격식성이 높다. 또한 합쇼체는 사실을 진술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어 문어성이 높은 까닭에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일반적인 사용규범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특정 인물이 합쇼체를 구사하게 함으로써 해당 인물 고유의 개성과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ST6

“I’m sorry. Ignatious. I didn’t know you liked it so much. You never said nothing about it.”
 “I had an unspoken attachment to it. It was a contact with my childhood, a link with the past.”
 “But he gave me fifteen dollars. Ignatius.”
 “Please. Don’t talk about it anymore. The whole business is sacrilegious. Goodness knows what degenerate uses he will find for that hat. …[중략]…” (24)

TT6

“미안하구나, 이그네이셔스. 네가 그걸 그렇게나 좋아하는지 몰랐단다. 여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니.”
 “무언의 애착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자는 제 어린 시절과의 소통, 과거와 연결해주는 끈이니깐요.”
 “하지만 그 총각이 십오 달러나 주지 않았겠니.”

“제발, 어머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그 거래는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그 모자를 그런 변태가 얼마나 타락한 용도로 사용할지 알게 됩니까? ...
[중략]...” (47)

ST6-TT6은 존 케네디 툴(John Kennedy Toole)의 『바보들의 결탁(The Confederacy of Dunces)』에서 주인공인 이그네이셔스와 그의 엄마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이 소설은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담겨있는 코메디로, 30세인 남주인공 이그네이셔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플롯이 전개된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그네이셔스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대학까지 나온 고학력자로서,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백수로 지낸다. “똥똥하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데다 말본새까지 고약한”(김선형 2010: 552) 주인공의 과대망상과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그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말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도 일방향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인물이다. 소설 전반에 걸쳐 이그네이셔스는 대화의 상대나 장소, 상황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합쇼체가 섞인 어투를 사용한다.

위 장면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쓰고 있던 모자를 행인에게 팔아버린 일을 두고 아들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친밀도가 높은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이고, 주인공은 어머니가 생활고로 인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팔아버렸다는 사실에 서운해 하고 있다. ST6에서, 이그네이셔스는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 격식성이 높은 어휘(“sacrilegious”, “degenerate”)와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TT7에서는 “신성모독”과 “타락” 등의 과장된 어휘, 그리고 합쇼체를 섞어서 번역하고 있다. 화자의 권위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합쇼체는(Yoon and Lee 2012)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그네이셔스의 대화 방식을 목표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작품 전반에 걸쳐 무능한 백수인 주인공이 벌이는 사건과 사고들은 한심하고 어이없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합쇼체는 쓴웃음을 자아내는 풍자의 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그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작품에서는 뉴올리언즈의 크레올 방언과 흑인 방언 등 구어의 특성이 강한 다양한 방언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어투들 속에서 이그네이셔스가 구사하는 설명조의 문장들은 확연히 구분

되는 주인공만의 개인어로서, 세상과 단절되고 괴리된 주인공의 캐릭터를 살리는 데 합쇼체라는 종결어미가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4).

한편 합쇼체는 언어적 비유창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ST7

He clasped his little attaché case closely and said, ‘Could you tell me what month it is? Is it still February?’
‘No. It’s the seventh of March.’
‘I don’t often meet people who know. That means another month-six weeks-before the rains.’ He went on, ‘When the rains come I am really safe. You see, the police can’t get about.’
‘The rains are best for you?’ she asked: (40)

TT7

그는 작은 서류 가방을 꼭 쥐면서 말했다. 「오늘이 몇 월입니까? 아직도 2월입니까?」
「아니에요. 3월 7일이예요.」
「지금이 몇 월인지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까지는 아직 한 달, 그러니까 6주가 남아 있는 셈이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우기가 시작되면 저는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때는 경찰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우기가 제일 좋다는 뜻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66)

ST7-TT7은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의 『권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의 일부 장면으로, 도망자인 신부와 그를 숨겨준 코랄이라는 13세 여자 아이와의 대화이다. 작품의 배경은 멕시코이며 코랄은 외국인 신분으로 멕시코에 거주한다는 설정이고, 신부도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두 인물은 서로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 성인 남성인 신부가 여자아이에게 합쇼체로 말을 하는 TT7은 한국의 공손성 규범을 위반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읽힌다. 번역후기에서, 역자는 유창하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어투

4) 역자는 원작에 사용된 다양한 사투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번역본에 사용된 어색한 어투들은 원본의 어감을 살리기 위하여 의도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선형 2010: 558)

를 표현하기 위하여 높임말과 낮춤말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김연수 2010: 370-371), 신부가 영어를 사용하는 장면에서는 각주를 통해서 신부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음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억양과 발음이 독특하며 주로 조사나 높임법, 호칭어 등을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존대표현인 해요체와 합쇼체를 한국인 처럼 섬세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요체나 합쇼체 중에서 한 가지로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역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주인공인 신부의 어투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규범적인 종결법의 구사를 통해 비유창성을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는 적절했지만, TT7에서 역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한 가지 이유로는 신부가 고급문법에 속하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전환을 꽤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결법을 제외한 문장의 다른 부분의 문법과 어휘도 어색한 부분이 없어서, 신부가 모국어를 쓸 때와 외국어를 쓸 때의 어법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5. 논의 및 결론

소설 대화는 구어를 모방하기는 하지만, 문자로 전달되는 텍스트이므로 문어성이 높은 편이며, 작가가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소설의 대화는 구어성의 정도를 작가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소설 대화는 화자와 청자와의 상황적 맥락이 제한적인데다가 화자와 청자의 개인적인 어투는 문자로 전달되면서 표준화되므로 소설 대화의 어투는 보다 양식화되어 있다. 이러한 소설 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미 소설 대화의 한국어 번역에서 상대높임법의 종결어미를 비규범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특히 존대등급 종결어미인 해요체와 합쇼체의 화용적 의미는 각각 구어성과 문어성의 특성과 상당 부분 합치하므로, 소설 대화의 문어적 특성이라는 환경 내에서 번역자는 실제 구어에서의 사용 규범보다 폭넓게 합쇼체를 활용하게 된다.

분석 텍스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 번역에서 합쇼체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현실 구어의 규범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

로써, 격식성과 공식성이 높은 재판 장면이나 방송 인터뷰 장면에서 인물들이 합쇼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면 해당 장면의 현실감이 높아진다. 둘째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한다. 소설 대화는 플롯 전개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종종 등장인물을 통해 전달하므로 현실 대화에 비하여 진술과 설명의 기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라도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합쇼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범죄나 수사 장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인물을 구분하고 인물의 개성이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규범적으로 합쇼체의 어투를 구현하기도 한다. 남녀의 대화에서 여성은 해요체, 남성은 합쇼체를 사용하게 하여 인물을 구분하는 것이 용인되며, 문어성이 높은 합쇼체를 한 인물이 상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합쇼체의 어감을 해당 인물의 특성으로 개인화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예문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가진 화용적 의미와 기능은 공손성이라는 언어 사용상의 사회적 맥락을 초월하여 소설 대화 번역에서의 문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문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물 행동의 숨겨진 목적을 전달하는 수단”(Leech and Short 2007: 137)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매우 다양하고 용례가 복잡하여 번역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또한 영한 번역에서 다양한 종결어미의 구현이 목표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원천 텍스트의 문체를 재현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본고는 번역자가 합쇼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문체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결어미는 번역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의무적인 항목이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문체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 대화 번역에 활용된 종결어미는 향후 그 선택의 기저에 놓인 번역자의 의도와 이념 등의 분석, 그리고 비번역 소설 대화에 사용된 종결어미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번역 문체의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논의가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김홍규, 허명희 (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 3-57.
- 강현석 (2011)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2): 1-21.
- 권오숙 (2010) 「희곡 번역 시 알맞은 어투 선정의 중요성 -와일드의 <살로메> 번역을 중심으로 한 고찰」, 『통역과 번역』 12(1): 3-20.
- 권은희, 성초림 (2014) 「소설 속 대화문에 나타나는 한국어 문장종결어미 번역의 문제 -「메밀꽃 필 무렵」의 스페인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2): 7-32.
- 김미형 (2004)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5: 2-52.
- 김순미 (2011) 「문학 작품 속의 방언 번역」, 『통번역학연구』 15(1): 189-219.
- 김정호 (2008) 「1970년대 ‘합쇼체’의 남성어적 성격에 관하여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0: 55-79.
- 김지은 (2016) 「서법 변환을 통한 현대 희곡 번역의 문체 재현 고찰 -라오서의 『차집(茶)』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27-46.
- 김혜경, 윤소영 (2018) 「관계 대상과 심리 변화에 따른 어투 번역 비교: 『에쿠우스』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27-52.
- 김혜영 (2019) 「영한 번역의 종결어미 사용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7(2): 133-162.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국학자료원.
- 박지순 (2019) 『현대 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 분석적 연구』, 성남: (학)신구학원신구문화사.
- 서정수 (2006)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 왕문용, 민현식 (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서울: 개문사.
- 이경희 (2015) 「한국어 발표 담화에서의 합쇼체와 해요체 선택 양상 연구: 한국인 대학생과 한국어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143-172.
- 이숙자 (2014) 「공손 표현에 대한 번역 전략: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을

-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131-155.
- 이혜윤, 옮김 (2009) 『화용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Yan Huang (2007) *Pragmatics*, Oxford).
- 임명진, 옮김 (2018)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Walter J. Ong (1982/2013) *Orality and Literacy*, third edition, Routledge).
- 장경현 (2006)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진실로, 원은하 (2019) 「문학 작품의 개인방언 번역 전략 연구: 『피그말리온』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7(1): 135-159.
- 최윤지 (2018) 「텔레비전 뉴스의 합쇼체와 해요체 사용에 관련된 언어 외적 변인 고찰: 말뭉치의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언어학』 26(4): 179-210.
- 한현희 (2015) 「러시아 희곡작품 속 관계조절 호칭어의 한국어 번역 전략 고찰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사례 분석」, 『통번역학연구』 19(3): 53-85.
- Al-Raba'a, Basem Ibrahim Malawi and Stuart Davis (2020) 'The Typology of Pharyngealization in Arabic Dialects Focusing on a Rural Jordanian Variety', *Journal of Universal Language* 21(2): 1-42.
- Cadera, Susanne M. (2012) 'Translating Fictive Dialogue in Novels', in Jenny Brumme and Anna Espunya (eds) *The Translation of Fictive Dialogue*, Amsterdam & New York: Rodopi, 35-52.
- Coulmas, Florian (ed.) (1986) *Direct and Indirect Speech*, Berlin, New York & Amsterdam: Mouton de Gruyter.
- Koch, Peter and Wulf Oesterreicher (1985) 'Sprache der Nähe - Sprache der Distanz. Mündlichkeit und Schriftlichkeit im Spannungsfeld von Sprachtheorie und Sprachgeschichte', *Romanistisches Jahrbuch* 36: 15-43.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impson, Paul (2004) *Stylistic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trauss, Susan and Jong Oh Eun (2005) 'Indexicality and Honorific Speech Level Choice in Korean', *Linguistics* 43(3): 611-652.

Tannen, Deborah (1991)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Yoon, Sang-Seok and Dong-Eun Lee (2012) 'Social Contexts of the Deferential Style of Korea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3(4): 495-516.

<분석 텍스트>

ST1: Lee, Harper (1960/1982) *To Kill a Mockingbird*, New York: Hachette Book Group.

TT1: 박경민 옮김 (1992) 『앵무새 죽이기』, 서울: 도서출판 한겨레.

ST2: Albom, Mitch (2007) *Tuesdays with Morrie*, New York: Broadway Books.

TT2: 공경희 옮김 (2010)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파주: (주)살림출판사.

ST3: Brown, Dan (2000/2006) *Angels and Demon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TT3: 홍성영 옮김 (2008) 『천사와 악마 1』, 파주: 문학수첩.

ST4: Le Carré, John (1974/2018) *Tinker, Tailor, Soldier, Spy*, Penguin Book Ltd. Available at <https://books.google.co.kr/books?id=4G9ODwAAQBAJ&printsec=frontcover&dq=tinker+tailor+soldier+spy&hl=ko&sa=X&ved=2ahUKEwioxZi968XuAhUVPnAKHbxVCM8QuwUwAnoECAQQBw#v=onepage&q=tinker%20tailor%20soldier%20spy&f=false>

TT4: 이종인 옮김 (2005) 『탱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파주: 열린책들.

ST5: Fowles, John (1969/1998) *The French Lieutenant's Woman*, New York: Hachette Book Group.

TT5: 김석희 옮김 (2004) 『프랑스 중위의 여자』, 파주: 열린책들.

ST6: Toole, John Kennedy (1980/2007) *The Confederacy of Dunes*, New York: Grove/Atlantic Inc.

TT6: 김선형 옮김 (2010) 『바보들의 결탁』, 서울: 도마뱀출판사.

ST7: Greene, Graham (1940/1980)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Penguin Books.

TT7: 김연수 옮김 (2010) 『권력과 영광』, 파주: 열린책들.

[Abstract]

**Translation of Fictional Dialogue:
Focus on Korean Honorific Speech Styles**

Won, Eun-ha · Kim, Sung-hee · Chun, Ju-young
(Kyungwo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patterns in which the Hapsho-style sentence ender is used in Korean translations of dialogue in English and American novels. Although fictional dialogue mimics spoken language, it also has the attribute of written language as it is presented in the written text. Authors can adjust the degrees of orality of dialogue according to their intention. In addition, fictional dialogue, a narrative technique for story development, tends to be more informative compared to real-life conversation. It also tends to be stylized as characters' speaking tones become more standardized while translated into the written word. This written nature of fictional dialogue makes the use of the highly formal and literary Hapsho-style sentence ender more widespread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and American novels than in everyday conversation. In fictional dialogue, the Hapsho-style sentence ender serves three functions: first, creating the sense of reality by reproducing the norms of actual spoken language; second, conveying information for the plot; and third, giving the characters their own individuality. The analysis of the selected texts reveals that the use of the Korean sentence ender is not limited to the social context of the language, i.e. expressing politeness, but is demonstrated in a wide range of styles by translators as a technique to develop the plots and/or to transmit the unique individuality of each character.

▶ Key Words: translation of fictional dialogue, sentence ender, Hapsho-style,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orality, literacy

▶ 주제어: 소설 대화의 번역, 종결어미, 합쇼체, 구어, 문어, 구어성, 문어성

원은하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수

won@ikw.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문체, 번역교육

김성희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조교수

sungk@ikw.ac.kr

관심분야: 문학비평, 문학번역, 번역교육

전주영

경운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jychun@ikw.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ESP/BELF, 세계시민교육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4일